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입문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속적인 봉사

주간 총 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골로새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진근

교회학교 총동원전도주일

예수 안에서 잃은 자 찾고 대신자 얻는 잔치들

오늘부터 6월 중순까지 부서별로 활발하게 진행

교회학교 각 부서는 5월말에서 6월 중순까지를 '총동원전도주일'로 정하고 잃은 자를 찾고 대신자를 복음으로 초청하는 행사들을 계획하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잃은 양 찾기를 위해 각 부서는 이미 연초부터 학생심방을 통해 학생들의 영적 상황을 점검하고, 장기 결석자 및 잃은 양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놓은 상태다. 그리고 부서에 따라서는 장기 결석 학생들의 결석 사유들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특별관리부를 구성하여 특별 심방을 실시하거나 교사들을 중심으로 연속 금식기도 등을 실시한다.

또한 지난 4월경에는 각 부서별로 대신자 카드를 작성하여 격에는 560명에서 많게는 100여명에 이르는 대신자들을 놓고서 기도하면서 학생들을 통해 구체적인 전도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까운 학교들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토요일 학교 전도운동도 꾸준히 실시해 왔다. 따라서 6월에 실시되는 총동원 전도집회는 잃은 양 찾기와 대신자 전도, 그리고 학교 전도의 결정체로서 영혼 구원을 향한 전반기 총결산의 의미를 담고 있다.

오늘을 총동원전도주일로 지키는 부서는 유년부와 소년부, 중등3부 등이다. 유년부는 이를 위해 이미 어제(30일) 학동, 선현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총동원 토요학원전도를 실시한 바 있다. 그리고 6월 14일에는 유년부와 중등2부가 총동원 전도집회를 가지게 되며 중등2부는 이때 작은음악회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중등1부는 전도집회 날짜를 6월 22일로 정하고있다 준비가 한창이다.

교회학교 각 부서 지도자들과 교사들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건지는 일을 여실히 받아들이는 세대들에게 저술한 구령의 열정을 가르칠 수 있기를 크게 기대하면서 학부별로 성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20일 교회학교 지도자 연석기도회에서 지적되었던 바와 같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출석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교회학교의 현실을 우려하면서 가정에서부터 지속적인 신앙 지도와 복음적인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

신혼가정부 여름수련회

6월 5-6일, 지산수련원

금년 교회학교 여름수련회의 문은 신혼가정부가 연다. 신혼가정부는 교회학교 중에서는 가장 많은 6월 5일과 6일 양일에 걸쳐 지산수련원에서 제15회 여름수련회를 실시키로 하고 '사랑하는 우리 부부' (아 7:10)를 주제로 선정했다. 이병목 부장은 "유업의 상을 받는 가정,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루어 가자"는 초대의 말을 통해 이번 수련회가 바쁘고 소란스런 삶의 현장을 기도과 말씀과 교제로 가득 채우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힌다. 금년 수련회의 강의를 지도를 맡은 조철수 목사가 담당한다.

동서울노회 주회

그림그리기 글짓기 대회

고른 성적으로 상 받아

지난 5월 23일(토) 올림픽공원에서 실시한 동서울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주회 그림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에서 우리 교회 학생들이 고른 성적으로 수상했다. 우리 교회는 총 23명을 참가시켜 각각 2명씩 최우수, 우수, 가작을 수상했으며 장려상 수상자는 3명이었다. 수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최우수상: 이예빈(유치) 김다희(유년), 우수상: 이예빈(유치) 김승(초등), 장려상: 박재원(유치) 박연경(유년) 김태은(초등), 가작: 김혜전 김연희(이상 초등).

구역장·부지역장 전반기 훈련 27일 은혜중 중강

지난 3월 초부터 구역장과 부지역장 그리고 남성도 구역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전반기 훈련과정이 지난 27일(수)에 종강되었다.

금년 훈련과정은 교회론 및 구역장론, 구역 운영론 등 구역에 대한 바른 신학적 이해와 실제들을 폭넓게 다루었고, 구역원 인도해나가는 인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교회는 이 훈련에 참여한 모든 구역장 및 부지역장들을 통해 교회 구성의 근본이 되는 각 구역들이 말씀에 대한 성실한 이해와 실천으로 뜨겁게 일어서게 되기를 크게 기대하고 있다. 한편 후반기 훈련은 9월부터 시작된다.

임마누엘찬양대 작은 사랑 음악회

6월 13일, 서초구외환관

임마누엘찬양대가 주회하고 4교구 및 서초구청 신우회가 후원하는 작은 사랑 음악회가 6월 13일(토) 다라갔다. 서초구외환관에서 오후 7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이 행사는 음악과 함께 청소년들과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불우한 이웃들에게 작은 사랑의 정성을 베푸는 것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임마누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를 찬양악과 합창, 독창, 첼로 독주, 트럼펫 트리오, 여성 중창 등 매우 다양한 고전적인 음악들을 선곡하여 준비에 열중하고 있다. 한편 금년 연주회에는 임마누엘찬양대의 외에도 본교회 다른 찬양대 가족들도 출연하게 된다. 출연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오늘은 성령강림주일 (Whitsunday)

오늘은 성령강림주일이다. 초대 교회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행 2:1-4)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7주(50일)가 지난 날이다. 전통적으로 성령강림주일에는 부활주일과 마찬가지로 저녁 시간에 세례식을 거행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점차 이 관행은 사라지고 있다. 성령강림주일일 Whitsunday(white + sunday)로 불리는 것은 바로 이 세례식 때 흰 가운을 입는 것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사실 한국의 교회들은 성령강림 주일을 그다지 비중있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나, 이 날은 본래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3대 절기에 속하는 날로서 교회 탄생의 나팔소리라 울린 교회의 생일과도 같은 날이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 날을 성령의 찬양과 새롭고 화상을 갈망하는 기도를 통해 교회의 갱신과 회복을 이루는 절기로 이해하고 기념해야 할 것이다.

남성중앙단 공연

6월 27일, 세실홀

남성중앙단(대장 차신동 장로, 지도 김윤경 집사)에서는 오는 6월 27일(토) 저녁 7시 30분 압구정동 세실홀에서 정기 연주회를 갖는다.

그동안 아름다운 화음과 열광 넘치는 찬양으로 성도들은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준 남성중앙단이 이번 정기연주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돌릴 수 있도록 성도들의 깊은 관심과 기도의 후원을 기대한다.

구호물품을 수집합니다

선교위원회에서는 6월부터 8월 중에 실시하는 단기선교에 필요한 구호물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품목

- 의약품: 비타민, 피부약, 모기약, 안약, 구충제, 항생제, 해열진통제 등.
- 의류: 4계절용(계한 없으나, 한우일 경우에는 설탕을 요망).
- 문구류: 제한 없음.

2. 접수

- 기 간: 6월 14일까지
- 접수처: 선교위원회(선교관 400호)

사랑받는 기도원

충현 가족들의 기도원 방문이 늘고 있다. 교역자 수련회, 장로 수련회, 안수집사 수련회와 충현기도원에서 이미 실시되었거나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각 위원회별, 교회학교별로, 그리고 교구별로 기도원을 방문하여 기도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겸손하고 단정한 시설과 친절한 입원객의 보살핌으로 편안을 누릴 수 있는 충현기도원을 통해서 주님의 바른 관계에 더욱 깊이 들어감으로써 모든 문제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한편 6월 기도원 사역자는 김인식 목사(15교구)이다.

애굽과 구스가 포로될 것에 관한 예언

(이사야 20:1-6)

“하나님의 종들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들의 수고는 그 개인에게도
복이 되고 민족에게 복이 되고 교회에도 복이 되는 줄 알고 편안한 오해를 받고
열시를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할 태도를 진실히 지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김창인 목사

이 사야 20장은 무수한 애굽 사람들과 구스 사람들에 앗수르 왕에 의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사야의 상징적 행동을 통해 유대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하게 된 배경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 민족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려 하였는데 북방의 대국 앗수르가 주위의 여러 나라들을 정벌하면서 점점 세력이 커지는데 소문을 듣고 경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이 생각하기를 ‘가만히 있다가 앗수르에게 당하는 것보다는 주위의 여러 나라와 동맹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강력한 군사를 확보한 애굽과 화친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때에 과거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시고 나서 다시는 애굽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은 우상만을 섬기는 애굽을 가까이 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 같아 보여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벌 수 없이 율행하는 여인처럼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빠져 기만 전에 멸망을 청구하는 일이라고 경고하게 되었습니다.

1. 애굽과 구스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앗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1절)

‘아스돗’은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로 애굽의 길목에 있는 큰 성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애굽과 화친하기 위하여 아산송 보낼 때에는 아스돗을 거쳐서 가야 했습니다. 또 앗수르가 애굽을 치려고 하면 아스돗을 점령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앗수르가 생각하기를 ‘저 아스돗을 먼저 점령해야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가 애굽과 가까이 하면 블레셋의 아스돗 성읍도 ‘좋다. 우리도 애굽과 가까이하겠다’하면서 앗수르에 대하여 반역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스돗을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가는 큰일나겠으니가 그 성을 점령하려고 한 것입니다. 유다가 애굽과 아스돗을 포함하여 블레셋과 서로 교류하는 것이 안전을 도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줄 알았으나 이것이 오히려 앗수르 군대를 불러 들이는 화근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앗수르 군대가 아스돗을 멸하기 위하여 출병하게 되었습니다.

2. 이 예언을 증거하기 위해 이사야가 보여준 예표가 무엇입니까

“곧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같지어다 네 허리에서 베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2, 3절)

(1) 3년 동안 허리에서 베를 끌었습니다
본래 왕의 사촌 왕족이며 지식이 많은 학자 이사야에게 얼마동안 허리를 동이지 않은 베로 겹옷을 만들어 입고 그것으로 애굽과 구스에 다가고 있는 어두운 시기에 대한 한 표적이 되라고 하였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당시 결혼한 벗으면 벌거벗은 형편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받은 명령은 일반적인 관습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용류가 깨는 것이었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만들 여지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행동은 이사야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2) 3년 동안 맨발로 다녔습니다

맨발로 다니는 것은 쉽게 밟아 뜰에 찢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도를 만났거나 재난을 당했거나 그밖에 거지나 전쟁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비참한 모습입니다.

3. 이 예표가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의 사조잡힌 자가 앗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불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라 그들이 그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4, 5절)

애굽과 구스가 앗수르 왕에게 사로잡혀 끌려 갈 때에 이사야처럼 많은 몸이 되거나 아니면 누더기 옷과 매우 초라한 옷을 입게 되리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허리띠를 풀고 버리고 신을 벗고 맨발로 예루살렘 거리를 터벅터벅 다닌 것은 예루살렘 거민들이 애굽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죄악이며, 오로지 사는 길은 애굽을 가까이 하고 구스와 블레셋을 가까이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죄를 회개하고 피조 사물하며 화목하는 데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어떻게 예표가 될 수 있었습니까?

첫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해관계를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는 것이 즐거운 일이나 칭찬받는 일도 아니고 미친 놀이라는 조롱을 받아야 하는 고생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몸소 행동으로 보여 줌으로써 아스돗이 멸망을 당하는 날에 예루살렘이 정신을 차릴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둘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벗은 몸과 발로 조롱을 받으며 고생을 하며 3년을 다니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면 못할 것이 무엇인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는 이사야는 귀족이요 학자이건만 인간의 생각을 다 버리고 3년 동안이나 예루살렘 거리를 헤매었습니다.

4. 이 예언이 성취되는 날 유다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날에 이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앗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6절)

이사야 선지자가 3년이나 벗은 발, 벗은 몸으로 예루살렘을 누비고 다니던 때에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하는 말은 무섭다는 소문이 퍼져 예루살렘 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할 즈음에 생각지도 않았던 앗수르 군대가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아스돗을 둘러쌌습니다. 이 광경을 본 예루살렘 거민들은 앗수르를 피하기 위해 도움을 청했던 나라들이 베풀어주지 못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리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3년이나 고생한 것이 효과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은 앗수르 군대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앗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멸망을 시키시므로 예루살렘은 그 때부터 100년 동안 평안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인정도 체면도 시국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면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3년 동안 미치광이 소리를 들으며 말할 수 없는 조롱을 당하고 고생을 했더니 그 효과가 나타나서 유다가 살게 되었습니다.

수르 군대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앗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멸망을 시키시므로 예루살렘은 그 때부터 100년 동안 평안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인정도 체면도 시국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면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3년 동안 미치광이 소리를 들으며 말할 수 없는 조롱을 당하고 고생을 했더니 그 효과가 나타나서 유다가 살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예언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둘째로, 오늘날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은 직분을 받았다고 다된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이해론, 고락문제를 초월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충현교회의 모든 일꾼들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해관계나 고락관계를 초월하여 미치광이 소리를 들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종들은 자신보다 자기 민족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넷째로, 사람을 믿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등지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이 앗수르가 강대해지는 것을 보고 그들이 군대를 끌고 오기 전에 미리 애굽과 구스와 동맹을 맺어 두자고 하였으나 이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고 멸망을 자청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의 종들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3년이나 미치광이 소리를 듣고 고생하면서 민족을 사랑했던 일뿐만 아니라 블레셋도 애굽도 다 앗수르 군에게 망하는 때에 유대만은 앗수르 군대가 손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의 고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들의 수고는 그 개인에게도 복이 되고 민족에게도 복이 되고 교회에도 복이 되는 줄 알고 편안한 오해를 받고 열시를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할 태도를 진실히 지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마른 땅 (여호수아 3:17)

“충현의 모든 성도들도 요단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범람하는 강물 앞에 주저앉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단의 마른 땅을 건너 영광스런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김 성관 목사

이שראל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몇가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상관없이 무었이든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반대로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하신 땅에 들어보내시기 위해 여호수아와 레위지와 제사장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고 제사장들은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믿음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아들로 마른 땅을 걸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는 봄(4월경)이었습니다. “(요단)이 모퉁거누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케를 댈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케를 댈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라”(15 절).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이전 전승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믿음의 눈을 떠야 할 시기였습니다. 출애굽으로부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십 년동안 광야생활을 할 동안 이스라엘의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의 사건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 주셨습니다. 매번 요단에는 열 가지 계명을 내려 주셨고 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민과 메추라기를 먹여 주셨고 만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표적이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세도 죽고 없으며 요단강에서는 아무런 표적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언약에 관한 일만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뿐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나 계시지만 특별한 언약에 관계 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과의 인도함에 따라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다른 방법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으나 아무런 표적은 따르지 않았습니니다. 만나도 메추라기도, 그리고 반석의 물도 없었습니다. 보이는 것만을 따랐던 믿음은 이제 실패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그들의 삶은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의 새로운 지도자입니다. 그에게는 백성들을 인도해 나갈 두드러진 표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다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굳게 믿도록 인도하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아무런 표적도 없이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보이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마른 땅을 건널 준비를 한 것입니다.

신앙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일에 익숙했습니다(고전 1:22).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목소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으로 전도되는 말씀 외에 무언가 더 확실한 것을 기대하곤 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는 어딘가 다르다고 느끼기 위해서 또는 더욱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경험—표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재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곧 하늘로부터 오는 특별한 표적을 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원하고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인도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게 하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요구하십니다. 언약에는 하나님의 지혜, 공의, 그리고 은혜로운 약속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돌판들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하게 믿음을 받았습니니다. 그러하여 제사장들이 언약계를 메고 요단 강 가운데 마른 땅에 섰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놀라운 사건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뒤 불가사의한 사건은 이성적으로 참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넘쳐나는 세찬 물결로 가득채워진 요단강은 도저히 사람이 건널 수가

없는 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친 물결을 잔잔케 하셨을 뿐 아니라 강물을 마르게 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서 요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7절). 이는 언약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크게 드러내시어 백성들이 하나님을 변함 없이 따르고 순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널 후에도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땅으로 들어갑니다. 늘 새로운 것을 접하고 익숙하지 않은 어려움과 위험에 처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안전한 길입니다. 요단강은 죽음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그 죽음의 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게 합니다. “여호와 언약계를 댄 제사장들은 요단 강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17절).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넌 것입니다! 죽음의 범람이 그들을 삼킬 수 없었습니다.

죽음의 강은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의 땅 사이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까? “내가 사랑의 울창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시 23:4). 우리의 구원의 방주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언약에가 우리와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는 우리는 더욱 가까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그리스도도는 우리를 죽음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진리의 길이십니다. “궁중에 통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통생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 2:4-8).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충현의 모든 성도들도 요단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범람하는 강물 앞에 주저앉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단의 마른 땅을 건너 영광스런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약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은 복음을 외치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과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아무런 표적이 없어도 십자가(언약계)만을 가지고 요단의 마른 땅을 건너라라고 외치는 것은 주의 종된 자의 의무입니다. 표적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 10:17).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순종하고 감당할 아무런 의심없이 마른 땅을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 나라 IMF에 의지하여 경제적으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수 수많은 가정이 크고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가야 할 마른 땅인 ‘길’이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도 마십시오. 더욱이 표적을 구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십시오. 오직 그분만 따르고 순종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도는 생명이십니다. 진정한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른 땅에 섭니다. 아멘. ■

미전도 종족 (Unreached People)

최근 우리는 여러 기회들을 통해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을 많이 접하고 있다. '복음'이 미치지 못한 종족, 곧 미전도 종족 개념은 최근 선교의 가장 급박한 주제 중 하나이다. 우리 교회는 이미 위임목사를 중심으로 7천명 선교사 파송의 꿈을 함께 꾸고 있고, 이 비전이 현실을 넘어서는 주님의 사명으로 달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즈음에 '국가' 단위가 아니라 '종족' 단위로 선교 대상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또 당연하다. 이에 미전도 종족에 대한 기본 정보를 신는다. (편집자 주)

종족(People)이란 그들 스스로 언어와 세계관의 일치로 인해 서로간에 하나의 공통적인 친밀감을 인식하는 개인들의 집단으로 복음화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이해나 수용의 장벽에 부딪히지 않고서 교회 개척 복음화를 통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가장 큰 집단을 말한다. 따라서 미전도종족(Unreached People)이란 외부(타문화권)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서는 이 종족 집단을 복음화시키는 데 필요한 만큼의 교인과 자원을 가진 크리스천 공동체가 그 안에 하나도 없는 종족집단을 말하는 것이다.

랄프 윈터 박사는 1972년 'Evangelical Missions Quarterly'에서 '도표로 본 나는 과거'라는 글을 게재하여 종족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종족 무지(People Blindness)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1974년 로잔대회의 개회식 시청각 강단에 사용되었는데, 이로써 종족선교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선교계가 '종족'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대상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은 1974년, 로잔대회의라고 볼 수 있다. 랄프 윈터는 과거, 국가별 대

으로 선교하던 것을 이제는 '종족별'로 세분화하여 선교해야 한다는 사실을 매우 설득력 있게 과해왔던 것이다.

이어서 1980년에 열린 에딘버러 대회에서 '2000년까지 모든 종족에게 교회를'이란 구호를 내걸었고, 이것이 종족 접근 선교에 불을 당기었다. 이러한 선교의 흐름을 읽고 있던 몇몇 선교계의 선진그룹들이 1990년대 후반의 선교의 흐름이 종족선교로 움직이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하고, 주요 선교 잡지에 미전도 종족 선교를 소개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선교 저력을 미전도종족 선교로 바꾸기 위해 본격적인 연합운동체의 설립을 추진하게 된다. 그 결과 1993년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산하기관으로서 한국 미전도종족임양운동본부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이로써 한국에서 본격적인 종족선교의 장이 열리게 되었다.

오늘날 미복음화 지역의 인구는 약 13억으로, 이들은 2,000개 종족, 1,000개 대도시, 30개 국가에 흩어져 있으며, 복음화되었다고 하나 교회가 감하지 못한 지역의 인구는 21억을 상회한다. 여기에는 4,000개의 종족이 800개 대도시, 그리고 70개 국가에 흩어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데이빗 바넷은 다음과 같이 선교 자원의 편중을 꼬집고 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총 수입의 99.9%는 자신들을 위해, 0.09%는 복음화되었으나 비기독교적인 지역을 위해, 오직 0.01%만이 미복음화된 지역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 선교사들의 분포를 보면 이러한 불평등은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세계 기독교 선교사의 약 92%는 자생적인 교회가 활발한 전도된 지역에서 일하고

있고, 오직 8%의 선교사만이 미전도종족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 선교의 사상 지대를 보여 주고 있다고 현대 선교학자들은 지적한다.

미전도종족은 외부의 도움 없이는 기독교 선교가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집단으로 선교사역에 늘 최우선 순위로 인식되어야 한다(롬 10:14). 물론 복음에 더 수용적인 곳으로 선교사를 보내려는 추수 선교사를 이론도 일리는 있으나, 이론인하여 복음 전파의 편중은 갈수록 심화되어 이제는 대대적 수술을 하지 않고는 안 되게 된 것이 현대 선교의 과제 되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외쳤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종족인 유대인 복음화를 위해서만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하였으나 로마에 여러 번 가기를 구하였다. 그리고 변변히 그곳에 가는 것이 막혔어도(롬 15:22) 로마를 통하여 당시 땅 끝인 사바나까지 갔고자 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미개척된 곳으로 향하게 했을까? 그는 상대방으로 복음이 더욱 소외된 곳으로 가기를 원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정경이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멀리까지 복음을 편파하게 전하게 하였는가(롬 15:19).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복음전파에 대한 기쁜 열망이 있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리" 람

였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20절). 이것이 바로 그의 선교철학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구약 선지자의 예언인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불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롬 15:21)를 실현하고자 했을 것이다. 바로 21세기가 원하는 선교의 철학이 이곳에 나타나 있지 않은가. 복음에서 소외된 미전도종족들에게 주의 소식을 보게 하고 듣게 하자.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사명이 아닐까.

(미전도종족임양본부 <선교정당훈련 표준강의안> 중에서 발췌)

현신의 의미를 아는 분을 기다립니다

박태양

(전도사, 선교위원회 외국인 근로자 사역부 부지도)

본 교회 선교위원회에는 외국인 근로자 사역부가 있습니다. 2년이 채 되지 않은 짧은 역사이지만 그동안 30여명의 아시아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후 귀국했습니다. 현재는 중국, 몽골,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7개국에서 온 현재 자매 50여명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오기 전에는 힌두교, 모슬렘, 불교도 또는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은 귀국 후 영적 불모지인 자신의 나라에서 선교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 매주 월 8시 40분부터 10시 50분까지 전교로 지하 2층 매추자기홀에서 찬양과 말씀, 교회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외국인 근로자 사역부가 충분히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아 성도님들의 도움을 꼭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몇 가지 필요를 채워 주실 분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1. 교사로 봉사: 주일마다 학생을 맡아 성경을 가르치며 학생의 영적 성장을 위한 제반 봉사를 합니다. 토요일 오후 2시 20분과 6시에 있는 교사 기도회에 참석해야 합니다(1회).

2. 식당봉사: 주일 3부예배 후 점심 식사를 하는데 교전에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3. 심방봉사: 교사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심방하고 있지만 사역의 성장상 주 1회 이상 그들을 방문하고 그들의 필요를 파악하는 일을 전담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4. 찬양봉사: 매주일 집회 시간에 20분 정도 찬송을 부릅니다. 영어와 국문으로 부르고 때로 각국어로 특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부르지 않으면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주중에 교회 찬양을 준비할 수 있는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5. 차량봉사: 외국인 근로자를 대부분이 서울 교(광주, 수지, 마석, 의정부 등)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에 사는 분들을 주일 오전 9시까지 교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차로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봉사가 어려우신 분들을 기도, 물질로 외국인 근로자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 사역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기로 작정하신 분께서는 선교위원회(552-8200 전화 356-8)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기다립니다.

선교를 위한 요일별 기도제목

단기선교(6월8일)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월 / 단기선교를 통하여 교회 전체적으로 선교의 불꽃이 일어날도록.

화 / 단기선교에 대한 관심과 기도가 확산되도록.

수 / 각 팀(7개팀)이 하나되어 은혜 가운데 준비하도록.

목 / 대학부, 청년 1·2부 단기선교를 통하여 선교의 열매 맺도록.

금 / 단기선교를 통하여 헌신자들을 발굴하도록.

토 / 외국인 근로자 사역에 동참할 헌신된 일꾼을 보내 주시도록.

젊은이 페이지(청년1부)

내 꿈의 그라운드 청년 1부

오미라 (가공)

청년1부는 나에게 있어서 꿈의 구장이다.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는 곳. 3년 전의 일이라 생각된다. 5월 청년1부는 '함께 하는 청년, 가스펠 콘서트'를 하게 되었다.

어렸을 적 나는 특별히 잘난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아이였다. 아주 예쁘지도, 똑똑하지도, 날씬하지도 않았다. 그때 나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몰랐다. 단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나의 생각을 전해 주고 하는 것을 좋아해 MC, DJ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했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선물을 주셨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내 목소리가 예쁜 줄 몰랐다. 주위 분들이 내가 이야기를 할 때, 목소리가 예쁘고 책을 잘 읽는다고 말하곤 했다. 그쪽 분야에 관심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포기해야만 했다.

그 꿈을 간직 한 채...

나의 바램을 펼칠 기회가 없었다.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하나님, 이것이 저의 재능이라면 이것을 펼칠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재능뿐 아니라 그것을 펼칠 수 있는 기회 또한 주셨다. 5월 청년1부 '함께 하는 청년, 가스펠 콘서트' 사회를 선배와 공동으로 보았다. 그 감격이란!

그때를 생각하면 실수한 것이 생각나 쑥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심에 대한 감사보다 크지 못하다. 그때를 시작으로 청년1부 내에서 나레이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생겼고, 면허회무부장으로 매주 신일생을 소개하는 일은 1년 동안 하게 되었다. 회무부 시간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는 나의 코치가 되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 주셨다. 또한 녹음 봉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청년1부에서는 공동체를 통하여 나를 알게 하고 나의 연합과 변화되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히 살아가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셨다. 나는 이 공동체를 주 안에서 사랑한다. 청년1부 안에서는 각기 다른 달란트를 통해 자신과 서로를 알게 한다. 봉사로 시작했던 일을 통해 진작으로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게 되고 회사에서의 의미 없어 보였던 일이 청년1부 안에서의 봉사를 통해 의미와 가치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나는 오늘도 소망하며 기대한다.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들을 통하여 어떤 또 다른 멋진 일을 계획하실지. 젊은이들의 계절 여름이 돌아온다. 충현의 모든 젊은이들이 이 여름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축복을 잘 활용하여 자신 안에 갖추어진 선물을 발견하기를. 그리스도로 인하여 뜨거워지는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청년호 선원 생활 3년반을 돌아보며

이명철(가공)

나는 어느덧 주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가끔(몇 개월에 한번) 청년1부 행사가 있을 때 생색내며 교회에 오곤 했다. 주위에선 주중에 교회에 가면 대단한 사람으로까지 여겨지기도 했다. 이런 나의 신앙 생활이 충현교회에서 3년 반이었다. 그저 겉모습만 더욱 두꺼워진 단단한 수박 겉껍질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 있던 성실한 속 알맹이마저 변해가는 걸 느끼고 있다는 것이었다. 예전엔 그래도 참 맛은 있었는데 하물심만 말이다.

이런 아쉬움 속엔 늘 회상이 있게 마련인데 "내가 왕년에 말이지..." 하고 거의 자취를 감춘 그때의 모습을 꺼내보려 노력해보지만 이내 한숨만 후잉...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모습이 될까봐 남 앞에서 드러내기를 싫어했고 오히려 숨어다니면서 나름대로 생활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었다. 그동안 안 교회일은 하나도 안 했지만 교회 안에서보다는 밖에서의 삶이 나에겐 도전이었고 선교였다. 무조건 참아야 했고, 이해해야 했으며,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했다. 그야말로 고행이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주위에선 나를 우선적으로 신용했고, 매우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했다. 그렇다고 지금은 안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때만큼 나 자신에게 평가되는 정도가 약해졌다는 말이다. 요새는 그야말로 뒤죽박죽인 셈이다. 결국에는 자신만을 위한 나의 공든 탑인 것을 알고야 말았다. 여기서 나의 하트 앤드 아이큐를 되질어바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가만히 안아두신다. 이와같이 주님의 역사하심 뒤엔 어떤 결과들이 따라 오는데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란 것이다.

이것은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계실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늘 생활에 지쳐버린 우리에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 하지만 우리에게 늘 성령성령 다가오는 삶 속에 담겨진 많고도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널려 있는 데도 우린 그걸 보지 못한다. 누굴 닮아라. 즉, 신앙은 똑똑한데 선원이 따라 주질 못한다는 것이다. 그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명칭해도 성실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인간사회에선 거의 말도 안되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 오래 전에 불스토이의 단편모습집 중에 '바보 이반'이라는 글을 읽었는데 그 바보는 세상의 지혜있음을 더욱 무색케 하는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의 진실함과 성실함이 그에게 있음으로 승리하였음을 볼 때 큰 감명이 아닐 수 없었다.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되어지고 짜여진 삶 속에 보석이 숨겨져 있음을 당장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보여질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소중히 간직하고 싶다. 그리고 남은 청년의 때를 주 안에서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좋은 것들과 보람된 것들만으로 채우고 싶다.

셋새마네의 기도자

류 정(72동기)

셋새마네 동산.

그곳에는
오래 전부터 지워지지 않는
소리가 있으니

내 영혼이

심어 괴로워

잠 못 이루는 밤

동산의 그 소리는

더욱 크게 바람을 타고

나를 휩쓴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별이 충충한 하늘 아래

셋새마네 동산에 오른다.

아!

놀랍도록 청정한 기도자여.

천사마저 그 곁에서 힘든 기도를 돕고

그를 바라보는 나 마저

온몸에 진땀이 솟는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지금 저 기도하는 이가

피었던 기도도 당신 앞에 얹었던 이가
도대체 누구임니까?

"저는 내 사랑하는 이,

나의 독생자 예수가 아니더냐."

그의 앞에 놓여 있는 잔 속에는

내 영혼을 용아내고 있던

진홍빛 죄와 허물이 넘쳐나고 있었다.

내 마음이

심어 괴롭고 고만되던 날,

셋새마네 동산에 올라

내 죽음의 쓴 잔 앞에서

천지를 뒤흔든 예수의 기도 소리에

떨리는 손으로

내 앞의 작은 쓴 잔을 비운다.

그 잔의 쓴 액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온통 사랑의 미소만 하나님의 얼굴

그 충만한 사랑 속에서

고만하여 죽을 듯하던 나를 향한

주님의 눈물이

영광의 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것을 본 듯하다.

인자가 무엇이란대

주께서 ...

말씀과 기도가 충만했던 훈련

오영자
(경사, 15교구)

부슬부슬 내리는 빗줄기 속에서 다섯살짜리 아들의 손을 잡고 골목을 나서는 배리리 울리는 전화를 받아보니 "아니 9시에 출발인데 아직 출발 안하셨으면 어떡할까?" 하는 목사님의 음성에 가슴이 떨렸. 사실 날 코리안 타임을 늘장 켜어왔기 때문에 9시 출발이라 해도 30분은 지연되겠지 하는 안일함으로 늦잠을 부리고 있었다.

목사님께서 우리 지역 모임 상태가 어떠한지 물으시는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어 애초는 아들만 빨리 간지 못한다고 나무라며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아니 이게 웬일? 200미터 전방에서 깜박이를 켜면서 버스가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 '주님 어찌했오 저 차 놓치면 기도원에 가지 못하는데.' 늦게 오는 교인이 없나 마더 두리번 거려 주신 집사님 덕분에 험덕이 타차를 타긴 했지만 기다려 주신 권사님, 집사님들께 너무나 죄송스러웠다.

기도원에 도착해보니 계절의 여왕 5월이라 했더니 날에 펼쳐지는 모든 사물의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떤 유명한 화가라도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솜씨만 할까.

찬양을 힘있게 힘있게 부르고 또 부른 후 오인숙 전도사님의 낭만한 음성의 기도 속에서 단허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 이어서 김진석 목사님의 강타 마더 3장 1-9절을 중심으로 한 강사가 있었다.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나, 듣고 믿음으로나 하시는 말씀 속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으로라고 힘있게 증거하시는 말씀 속에서 마음 사도의 부르짖는 모습을 보는 듯하여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도 능력을 행하시니"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나 듣고 믿음에서나(갈 3:5) 마음 속

깊이 양심의 소리를 들으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 점심식사 후에 기도원 봉사를 하는 시간이었다. 빨리 봉사를 끝내고 기도시간에 더 많이 가지자는 말씀에 모두들 존중하기로 하고 청소도구를 들고 지역별로 나누어진 장소에서 쓸고 털고 닦고 하며 깨끗한 일을 맡아하시는 집사님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다.

기도원의 별미인 우거지 된장국을 맛있게 먹은 후 지역별 기도 모임을 가졌다. 지역장님의 인도로 구역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360장 찬송을 소리높여 부르면서 죄인인 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감동 또 감동. 또 이어지는 본당에서의 지역별 찬양대회에서 4개 지역이 열심을 다하여 3장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다. 지역을 소개해라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인연이 없어서 못하신다고 하며 시작한 지역 자랑이 시의원이라서도 참마는 분간이 열심을 다하여 소개하시는 모습에 모두들 또 폭소를 자아내게 하였다.

합심기도 시간에는 민족 복음화와 IMF의 국난극복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총회와 교회를 위하여, 전국 목사, 장로 기도에 성령찬양한 주시여 총회의 평강을 주시라고, 또 위임목사님과 원로목사님 사역을 인도해 주시라고 부르짖으며, 세계 선교 및 지역복화를 위하여, 구구와 구역을 위하여, 가정의 평강을 위하여, 환우들을 위하여 조목조목 제목을 부르며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성령 찬양한 속에 또 교구 전체의 부르짖는 뜨거운 속에 모든 기도를 용담해 주신 줄 믿으며 기도회를 마쳤다.

뜰에 내려서니 언제 봐 왔었다는 듯 맑게 개인 하늘 위에 비쳐지는 십자가, 유난히 맑고 깨끗해진 붉은 십자가가 마음 깊은 곳에 와 닿았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을 10장 35절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들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인데 이같은 삼씨(Seed)의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며 한 몸이라고 합니다. 결국 조희성은 성경에 나타난 삼위일체론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2. 인간과 죄론

상기한 바와같이 승리제단에서는 인간이 곧 하나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 두 분에게서 영원 전부터 창조주 하나님과 공존했다는 이 두 하나님이 6000년 전에 마귀에게 점령당해 욕심으로 인해 범죄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들의 피가 더러워져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증거로 그들은 아고보서 1장 15절과 로마서 6장 23절을 근거 구절로 들고 있습니다. 피는 생명의 근본 물질인데(레 17:11.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러한 피가 욕심으로 인해 변질되며 결국 썩게 되고 이와 함께 질병과 사망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3. 영생교리와 구원론

영생교 승리제단 교리의 핵심은 영생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라는 주체의 의식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면 그 피가 맑아지면 또 피가 곧 생명이므로 결국 영생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요한복음 11장 25절을 인용하여 그들이 말하는 영생은 영원불변한 나 아니라 실질적인 에덴동산의 회복이 현실로 이루어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곧 생명이며 영원한 존재이므로 영생하지하면 죽음 수밖에 없는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 피로써서 말하는 믿음과 은총이 아니라, 그의 말을 벗고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욕심과 '나'라는 의식을 버려야 하며 이러한 영생과 구원을 주는 자는 이진 자라 합니다. 그런데 이진 자의 비밀은 이슬성신이 내리는 승리제단에 와야만 이같은 비밀을 알게 되고, 그러한 비밀

계속 이어질 성령 행전을 기대하며

박경숙
(경사, 17교구)

신독이 우거진 맑고 화창한 5월 15일 김동석 목사님과 현정남 전도사님을 비롯한 17교구 199명의 가족들이 지난 1월 13일에 이어 영성훈련으로 4개월만에 총회 기도원에 모였다. 기행과 반가운 얼굴로 서로 인사를 나누며 은혜받기를 위하여 빌어 주었다.

성령의 날을 맞이하여 영적 수송님인 두 분에게 감사의 꽃다발을 가슴에 달아 드렸더니 "이렇게 나쁜 제자한테서 꽃을 받기는 처음"이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모두가 웃었다.

찬송가 185장 "내 너를 위하여"를 부를 때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 성령의 행전이라고도 불리우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존중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 감람을 기다리라고 명령함으로 끈질기게 기도해 힘은 제자들을 본받으며 성령을 얻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목사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으며 다시 한 번 신앙의 자세를 기대다듬었다.

모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 말씀에 따라 간절히 마음으로 성령찬만, 은혜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배를 마친 후 각 전도회별로 월례회를 가졌으며 식사 후 봉사활동도 하였다. 이어 성경퀴즈(사도행전에서 출제) 대회가 열렸다. 3주 전부터 준비한 실력들을 발휘하는 순간이었다. 즉석에서 상품이 주어졌으며, 특히 지역별로 6인 팀당 시경에는 지역식구들이 모두 나와(이런이부터 백반이 이르기까지) 좋은 정수를 얻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목사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으며 다시 한 번 신앙의 자세를 기대다듬었다.

짧은 일정 속에 아쉬움을 남긴 채 기도원을 내려오는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더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쁨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였다.

을 깨닫는 자만이 그로 인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비성경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4. 내세론

승리제단이 말하는 현재란 곧 내세이며 내세는 곧 내세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피는 곧 생명이요 욕심을 버림으로써 더러워진 피가 맑아지면 그것이 곧 영생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천국과 지옥, 불교의 극락이란 내세적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5. 갈로해인(甘露海印)

영생을 이루는 곳에서는 항상 이슬이 쏟아져서 되는 데 이 이슬은 영생의 종류라 할 수 있으며(호 14:5; 사 26:19), 천하태평의 조짐으로 하늘에서 상서로운 내리는 단 이슬이며, 불교에서 말하는 불로장생의 이슬이라는 것입니다. 고서와 불경에는 갈로해인을 들고 나오는 자가 정도령, 생미복유라 하는데 이러한 갈로해인은 이슬이 때문에 기독교의 천국과 지옥, 불교의 극락이란 내세적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판

결국 조희성의 영생교 승리제단은 박태선의 계열로서 천부교, 전도관의 교리를 바탕으로 하여 기독교의 메시야 교수주 사상, 불교의 미륵불 사상, 그리고 한민교의 고유 전래 사상인 정도령 사상을 혼합시킨 이른바 혼합주의적 세계가 농후하며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피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죄와 영생의 교리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은 박태선의 전도관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으며 타종교에 대해서는 포용적인 견해를 보이는 이단종파라 할 수 있습니다.

영생교 승리제단

정현민

(목사, 16교구) 창간부·법조인협회·도사경학회(지도)

한 때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만든 영생교의 교주 조희성은 8·15 해방 후 북을 치며 전도하는 박태선을 회개해 되면서부터 그를 따르게 되었고 그 후 전도관과 신앙촌 건립에 열성적인 핵심멤버가 되었습니다. 6·25전쟁은 반동분자로 몰려 복역하기도 했으며 월북당해 평양에서 사형선장로 구사일영으로 발탁했으나 유엔군의 진격으로 다시 불발하게 되자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습니다. 그 후 반공포로 석방으로 풀려났고 육군장교로 복귀한 중에도 여러 고위 교회를 세우는 등 진동활동에 열심이었습니다. 이와같이 박태선의 수괴라고 할 수 있는 조희성은 일을 하는 중에 도 개미로 제사를 봉제 박태선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었다 하며 제사를 바른 도를 호령한다 하여 '정도령', '주님' 등의 호칭으로 승리제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주요 교리 및 주장

1. 신론

영생교 승리제단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곧 사립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의 인간창조 기록을 그 예로 들면서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과 똑같이 만들었기에 사람은 곧 하나님이며 그 분명한 증거를 요한복

지체들 소식 / 교정전도를 다녀와서

지체들 소식

영아부

주일마다 많은 아기들이 영아부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평균 5-6명씩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생명의 떡이 그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영아부에서는 아기들에게 영아 육이 모두 바르게 자라나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얼마 아비들도 예수님의 가르치심 위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송혜경 통신원)

유아부

오늘은 반별 친교 주일

유아부에서는 오늘을 반별 친교 주일로 지킵니다. 매우 열광한 보고 지나치는 게 아쉬워 부모님과 아이들이 모두 모여서 다과와 친교를 나누는 날입니다. 그동안 결석했던 친구들, 또 4, 5세 어린이 중에서 유아부에 등록하지 않은 어린이들은 오늘 꼭 유아부로 모여 주세요. 4, 5세 어린이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 부모님들, 유아부에 오시면 반가운 얼굴을 만날 수 있고 어린이들도 좋이라고 또 예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임미순 통신원)

유년부

작은 천국 잔치

오늘 1, 2부 집회 시간에 초청전도잔치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주제로 김영기 전도사님의 말씀과 함께 재미있는 인형극과 가창행렬, 그리고 새 친구들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부르는 축복송도 선생님들이 준비하고 계세요. 지난 22일(금)에는 많은 수의 유년부 선생님들이 후원기도원에서 준비기도 모임을 가졌답니다. 또한 토요일마다 학교 앞에서 전도하는 것은 물론 토요일이 이어지는 연속 기도로 유년부의 '작은 천국 잔치'는 예수님을 전하는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이 될 거예요.

이제는 계속 이어지는 선생님들 소개를 하겠어요. 오늘은 5과 선생님들인데, 5과의 대강은 몸무게 만큼이나 마음이 넓고도 훌훌하고 자라는 조약화 과장님이에요. 제본대장으로는 찬양, 율동을 잘하시고 다재다능하신 김현실 선생님, 건축 분야에서 일하시듯 정확하고 세심함을 원칙으로 하시는 문원준 선생님, 그리고 항상 깔끔한 미모로 모든 일에 열심이신 신귀옥 선생님이 계시지요. 제2대대장으로는 어떠한 직함과 일에 도록 열리지게 책임 완수하시는 이용순 선생님과 3인

방 권사님의 중한 분으로 언제나 조용조용 소년 같은 분위기의 은은자 선생님, 모든 문제는 긍정적으로, 큰 일은 큰 마음으로 생각하시는 또 한 분의 전신신 임영숙 선생님, 끝으로 교구나 교회의 일로 항상 바쁘시지만 모든 일을 철저히 마무리하는 문현정 선생님이 계시답니다. 어린이 신앙 교육에 최선을 다한 후에 따라오는 보람과 행복을 맛보고 기뻐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5과와 같은 유년부 선생님들이 아니겠어요! (강현주 통신원)

중등 2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김진태 학생, 문영광 학생이 외운 말씀 맞았나요?" 지난 주일 교육과정 박성호 과장님께서 사회를 보시고 믿음, 소망, 사랑과에서 예선을 거쳐 선발된 여섯 친구들이 결선을 하는 성경 암송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말씀 공부를 했던 14개의 요절 말씀을 암송하여 친구들과 맞짱이나 붙였느냐 하며 겨루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중등2부 교사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뻐요, 너희들은 훈련한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교제로 부지런히 훈련시켜라. 내가 너희들을 훈련시킨 것처럼!" 그동안 칸막이도 없이 마땅한 시청각 자료 한 점없이 이 한 저 한에서 함께 치러 대된 말씀 공부 시간. "선생님, 언제 끝나나요? 오늘은 그냥 가면 안되나요?" 오늘날 녀석들은 비롯처럼 그렇게 말했었던 그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므로 우리 교사들은 목청을 높입니다. (나성애 통신원)

고등부

주님 안에서의 친교를 위한 체육대회

고등부에서는 오는 6월 6일(토) 교회 본당 앞마당에서 체육대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공부하는 힘과도, 많은 회원들이 서로간에 잘 알지 못하는 데서 화합이 부족하다고 판단, 친교를 목적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펼쳐질 이번 체육대회를 통하여 앞으로 말씀 안에서 굳게 설 고등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현정 통신원)

1교구

계절의 여왕 5월은 꽃의 여왕 장미처럼 향기로운 자

태로 마음을 사로잡고, 어린이주일, 아버지주일을 맞으면서 가정의 중요성을 느끼게 한다. 22일, 선봉에서 교구의 아버지임을 모시고 연합 구역 예배를 드렸다. 화창한 날씨로, 연합 구역 예배로 불러 주심에 모두들 감사드리며 열 사람에게 "정말로 복있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서로 화평의 인사로 시작된 예배는 시편 1편 '복있는 사람은'을 주제로 하나님이나 하는 문을 여신자 말씀으로 즐거워 하게 하고요. 아담, 이새, 좋은 것을 이웃에게 주어 서로 화평한 시간이 되며, 주 안에서 어른을 섬길 줄 알며 사랑으로 품고 참치듯 한 식구들도 분명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에 서로 챙기며 오늘 하루는 '화목하게, 즐겁게, 이런 공경하며 하나되는 날'이길 축원하시는 이용순 목사님과 함께 말씀 안에 하나님께 영광드리길 소원했다. 70세 이상의 참석하신 어버이님들께서는 정성의 선물과 함께 건강과 장수의 인사들을 드렸다. 시간 전에 먼저 도착한 구역 식구와 먼저 양동을 돌리 보면서 깨끗이 정돈된 잔디와 주위 환경에 마음이 편안함을 더 자유로움을 더해 주었다. 잡초가 제거된 잔디처럼 자연 속에서 심령을 비취볼 수 있는 하루였다. (임동개 통신원)

충원북지단

제18회 전국 장애인 전선서 동맹일 획득

5월 19일-21일 국군 상무합동운동장에서 열린 제18회 전국장애인 체전에 충원북지단생들이 참가하여 선전하고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전국에서 선발된 선수들이 육상, 수영, 펜싱, 보치아, 골볼, 론볼링, 휠체어 테니스, 낚시, 배드민턴, 달리기 등 모두 17개 종목에서 열린 경합으로 벌였는데, 여자 낚시 뛰기에서 최수하 훈련생(사건)이 동맹일을 획득하고, 3명의 훈련생이 본선에 진출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일반 체전과는 달리 약간의 형평하고 중요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던 체전이었던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둬으로써 충원북지단을 전국에 알리고, 훈련생들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 석 정(은복권사, 17교구)

“그들은 기쁨으로 찬송하고 눈물로 회개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송가 94장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읽자며 부른 다음 그들이 좋아하는 찬송가를 한 시간이 넘도록 막수을 치며 그들이 떠나갈 듯 우렁찬 목소리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참으로 화회의 도가나였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지난 날의 악의 그림자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기쁨에 넘쳐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하는 사람들, 참로 하나님의 사랑 아래는 원수도, 미움도, 원한도 없었다. 저렇게 맑고 밝은 얼굴들이 어떻게 그런 무서운 죄를 저질렀단 말인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그들이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간절히 기도하였다. 이어서 아멘찬양대의 거룩한 찬양과 강구구 집사님의 특별찬양은 더욱더 그들을 감동시켰으며 은혜로웠다. 그리고 교정전도회 지체 목사님인 김재철 목사님의 "이 말씀 들으라"

4월 21일 이른 새벽, 아직도 어둠이 가시지 않은 거리를 달려 교회에 도착하여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서울에서 300킬로가 넘는 거리에 있는 청송 제2교도를 방문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갖춘 교정전도회 임원들과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아멘 찬양대원들과 모두 65명의 버스에 몸을 실었다. 70살이 넘도록 교도소가 어떤 곳인지 전혀 가지지 못한 처지라 불안하기라고 두려움도 하여 착잡한 생각과 동시에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버려진 그 생명들을 영혼 구원의 큰 사명을 띠고 가기는 하지만 얼마 만큼의 수확을 얻고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과 석연치 않은 마음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간 밤에 내린 비로 산천초목이 연두색, 초록색 빛으로 물들여 빛나는 창밖으로 내다보이는 우주만물이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의 신비함을 만끽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근 6시간이 경과되어서야 청송에 도착하니 벌써 정오가 되었다. 찬마를 비비뭍으로 잠잠하고 먹고 우리 일행은 청송교도소로 향하였다. 우리의 기로는 다섯배는 넉넉히 넘도록 넓은 콘크리트벽과 쇠창살로 견고하게 폐쇄된 교도소 입구에서 이에 들어갈 수를 가지고 교도소 안에 세워진 교회로 들어가니 깨끗하게 정돈된 곳에는 벌써 많은 수감자들이 앉아서 대기하고 있었다.

란 계복의 뜨거운 열정은 모든 참석자들의 "아멘" 소리와 함께 더욱 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를 작정한 사람은 일어나 보시오" 하는 목사님의 물음에 수십 명의 결신자들이 여기저기서 기쁨에 넘쳐 상기된 얼굴로 기립하였다. 폐부에서 솟아나오는 통성기도와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들"을 들으며 교회를 떠나는 우리 일행 모두와 손을 흔들며 헤어지기를 아쉬워하는 그들을 뒤로 무리하여 떠날 수 없는 아픔과 회일이 엇갈리며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교도소를 떠나기 전에 임길순 소장님(충원교회 집사, 최철산 집사님 부군)과 함께 방문 기념촬영을 한 다음 버스에 오르니 16시 30분이었다.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수많은 참석해 왔지만 이번엔 그렇게 뜨겁고 간절하고 뼈아프게 울며 외치면서 기도한 적이 없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우리의 국가가 안정되고 평안하고 잘사는 또 하나님의 길은 오직 이 아픔과 감동하고 비탄하고 소망있는 자들로서 긴 터널에서 하루 속히 구원받게 하여 밝은 세상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끝으로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수고하신은 교정전도회 회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욱더 교정전도회를 위해 건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 회 소 식

● 알 림

1. 구제헌금 / 오늘 I, II, III, IV, V부예배시 드립니다.
2. 주간총헌 다음주 광고 오늘 마감 / 6월 4일(목)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일과 6일(토) 현충일인 공휴일 관계로 다음주(6월 8일-6월 13일) 광고를 오늘 마감합니다.

● 모 임

1. 장로 화요새벽기도회 / 6월 2일(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2. 교구위원회 월례회 / 오늘 15:30, 선교관 301호
3. 재정위원회 월례회 / 오늘 15:00, 사무국
4. 주일오후기도회 / 매주일 15:00-16:30, 사랑부 예배실
5. 설립인전지도 목요기도회 / 6월 4일(목) 새벽기도 후, 설립인전지도실
6. 출판국 회의 / 오늘 15:30, 선교관 303호
7. 안수집사회 부부 찬양연습 / 오늘 15:30, 교육관 314호
8. 안수집사회 월요새벽기도 성경공부 / 6월 1일(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9. 권사회 총회 / 오늘 15:00, 갈릴리움

● 남녀전도회

1. 베드로11 / 오늘 교구모임 후, 영아부실

● 열 현

1. 강경석(강신복 목사, 김옥순 사모의 아들과 조영래(조인제 장로, 박정순 권사의 딸, 제2교구) / 6월 2일(화) 12:30 갈릴리움

● 별 세

1. 정경자 성도(박영은 성도 부인, 제5교구 포이2구역) / 21일 별세, 23일 장례
2. 이정신 집사(김광남 장로 모친, 라영실 권사 시모, 제5교구 개포4-1구역) / 23일 별세, 25일 장례
3. 이봉록 권사(이인자 권사 모친, 박인세 장로 장모, 제11교구 창신구역) / 25일 별세, 28일 장례
4. 임진춘 성도(임영실 권장 부인, 황순진 집사 장인, 제3교구 개포8구역) / 26일 별세, 28일 장례

● 6월 주일 및 수요일에 기도 담당

월	일	주일 예배 (장로)					찬양 예배 (임진자)	수요 예배 (권사)	
		I	II	III	IV	V		I	II
6	7	최정현	최대원	하대진	김경철	남진우	김 신	김영숙	김은숙
	14	정하수	윤인현	노광원	강은원	박승준	최윤덕	김태국	김정아
	21	이창호	김영철	송환창	강모용	임필성	안동현	김우진	김인자
	28	문용구	이 훈	황영일	홍기용	오정현	김영은	김용순	김소희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997	김한국	2	청년2부	문상식(2)	1009	김신미	8	청년1부		1021	강승엽	19	청년1부	
998	이재순	3	루디아	송환자(1)	1010	소진용	13	베드로		1022	최인영	19	청년1부	
999	김태수	3	베드로		1011	박정윤	14	청년1부	김한선(14)	1023	이수현	19	청년1부	
1000	장명자	3	루디아		1012	고영선	17	청년1부		1024	신성진	19	청년2부	
1001	김학봉	4	바울		1013	김미영	19	고등부		1025	김영진	19	예바다부	
1002	김진숙	4	예스디		1014	양현진	19	고등부		1026	김영진	19	예바다부	
1003	김상국	4	대학부		1015	박민진	19	대학부		1027	송해정	19	예바다부	
1004	김은경	4	대학부		1016	황화경	19	대학부		1028	윤정중	15	바울	
1005	최순서	6	루디아	김석(3)	1017	이윤훈	19	대학부		1029	송해석	15	예스디	
1006	박지성	6	중등부	김석(3)	1018	박은진	19	청년1부		1030	유원철	15		
1007	박민용	6	베드로	김석(3)	1019	송진희	19	청년1부						
1008	조영진	6	바울	이승우(6)	1020	신혜영	19	청년1부						

※총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에바다부 장애 딛고 예수 제자로서의 삶 지향

23일 노병전도, 24일 성경암송대회

에바다부에서는 지난 5월 23일(토) 청각장애인 근로자 체육대회가 개최된 서울신학교에서 체육대회에 참가한 다른 장애인들과 친교를 나누면서 전도를 했다.

대회를 주최한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와 에바다부가 미리 협의를 하여 '총현교회'라는 글자가 크게 새겨진 천막을 치고, 그 천막을 대회 본부석 겸 전도 요원들의 배스캐프프로 사용하면서 내빈들과 농아인들에게 전도지와 총현의 만남을 나누어 주고 미리 준비한 음료수와 먹음 대접하면서 전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전도 활동을 통하여 대회 주최측은 물론 '불신자들도 교회에 대한 거리감을 없애고 총현 교회에 대해 친밀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면서 좋은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5월 24일 주일 집회시간에는 성경암송대회를 실시했다.

마태복을 5장 1-20절을 범위로 하여 진행되었는데, 학생반에서는 김정현 군(삼성학교 중등부 재학중), 성인반에서는 최혜아를 타는 청각장애인 전미 다애가 각각 1등을 했다.

특히 부장 진홍용 장로님은 암송대회 일주일 전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암송하여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강한 도전을 주어 암송대회 당일인 24일에는 교사와 학생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함께 참가하게 되었다. 암송대회가 끝난 후 모든 교사와 학생, 성도들은 외운 말씀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을 다짐했다. (변장대 통신원)

금주의 기도 제목

- [1] 김창진 원로목사와 김성관 위임목사께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과 육신의 건강함을 주시며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 [2] 각 구역예배 및 남성도 구역예배가 복음을 새롭게 깨닫고 힘있게 일어나는 아름다운 온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총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며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 [3] 각 예배순서를 맡은 모든 일꾼들이 사랑과 평강으로 총현하여 성령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소서.
- [4] 모든 성도들과 기관과 교회에 전도와 선교의 열기가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열심히 참여 하소서.
- [5] 새벽기도회와 금요집회와 주일 5부예배가 계속해서 힘있게 일어나게 하소서.
- [6] 민족과 나라의 교회를 위한 회개와 기도 의 운동이 불붙게 하소서.
- [7] 총현의 모든 성도들이 주일을 성수하며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몸이 이론 성도들을 믿음 중에 강건케 하시어 치토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소서.

■ 원로목사

김창진

■ 위임목사

김성관

■ 부목사

이홍성 김희수 이종대 박정현 김동석 김필수 전형준 김재철 이송수 정갑진 장현민 조준환 조희수 김광호 차병준 김필태 김인식 강승현 사명진 이송하

■ 협동목사

윤영택 박형용 노봉린

■ 신사

이준교 안석철 김영대

■ 강도사

이준경 박노철

■ 원로전도사

이두만

■ 여전도사

최순복 정연희 한정남 정복인 장영자 임태주 김정자 배옥희 최희혜 손미희 송향자 신동자 윤운진 오정숙 오인숙 김옥순 한영준 박희영 박희자 김영숙 김복순 최영만

■ 교정전도사

박양덕

■ 교육전도사

박인기 염현일 한승일 이종관 김영기 송현식 김광중 조제민 최진주 허용구 이두환

■ 선교전도사

정정식 정은희 박태양

■ 청소년선교사

유병세 김형진 이기성 김철영 고은빈

6월 7일 예배 전 찬양곡목 및 헌주

◆ 2부예배

알토 노호영(오르간 / 김남욱)

(찬양곡목)

- 주는 귀한 보배(한 452장) · 오 신실하신 주(한 447장)
- 주여 지난 밤 내 고향(한 542장) · 나와 같은 죄인 위해
- 내 마음을 주께 바치옵나이다

◆ 3부예배

소프라노 박경희(오르간 / 조희영)

(찬양곡목)

- 이 믿음 더욱 크시라 · 주 나에게 주시는(한 207장)
- 살아 계신 주 · 복음에서는 백성들을 보라

◆ 4부예배

소프라노 김승자(오르간 / 김남욱)

(찬양곡목)

- 내 주의 보혈은(한 186장) · 내 마음의 참된 평화
- 이 세상의 천주들(한 440장)
- 속죄하신 예수께(한 35장) · 불길 같은 주 성령(한 173장)

◆ 5부예배

소프라노 최귀진(피아노 / 안예스디)

(찬양곡목)

- 주께 가오니 · 나 주를 멀리 떠나(한 331장)
- 아서 돌아오신(한 317장) · 내 영혼은 은총 입어(한 405장)

